

우리나라 사서교사 양성현황과 수급문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resent Educational Aspect of Korean Teacher Librarians and Their Supply-demand Problems

김 성 준(Sung-Jun Kim)*

서 진 원(Jin-Won Suh)**

〈 목 차 〉

- | | |
|-----------------------|---------------------------|
| I. 서 론 | 3. 학교도서관진흥법 기준 |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V. 사서교사 양성체제 및 수급 문제점 분석 |
| 2. 선행연구 개관 | 1. 양성체제의 문제점 |
| II. 사서교사 양성체제 및 현황 | 2. 사서교사 수요 및 배치 기준의 문제점 |
| 1. 사서교사의 양성체제 | 3. 사서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점 |
| 2. 사서교사의 양성현황 | V. 사서교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 |
| 3. 사서교사 배치 및 자격취득자 현황 | 1. 적정 양성인원 |
| III. 사서교사 수요분석 | 2. 양성인원 확대방안 |
| 1. 사서교사 선발현황 기준 | VI. 결 론 |
| 2.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 |

초 록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양성현황과 수요전망을 통해서 사서교사 양성체제와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서교사의 교육체제,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인원을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양성능력을 전망하고, 사서교사 선발현황과,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미래의 수요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재조정과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사서교사 양성기관, 사서교사 교직과정

ABSTRACT

Through the present training condition of Korean teacher librarians and their supply-demand prospects,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both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of its supply-demand and suggested the solution as well.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educational system of teacher librarian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raining organizations, this paper predicted their supply ability in the future and analyzed the demand which is necessary, when applying the standards of Korean Library Association and School Library Promotional Law with the selective situation of teacher librarians. In this way, the problems of supply-demand imbalance were indicated and, as a method for training the proper number which is required for the future demand, the rearrangement of the approval number of a course of study for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education department in education college were proposed.

Keywords: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Teacher Librarian Education System

* 전주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hakdoman@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www@chonbuk.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8월 4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002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과 이 관심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형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은 많은 성장을 하였다. 90%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시설을 갖추었고,¹⁾ 독서자료의 보고로서 또 정보활용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고무적인 사실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전담인력 배치에 따라 학교도서관 경영자로서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의 담당자로서 사서교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2008년에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관련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공포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할 전담인력의 정체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두 번째는 주로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이하 “교직과정”이라 한다)에 의존하고 있는 사서교사 양성체제에서 교직과정승인인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2008학년 입학자부터 양성인력의 급격한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세 번째는 2008년부터 임용시험 제도가 3차로 개편되면서 보다 높은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가진 사서교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사서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도 분명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서교사의 배치이며,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자적 자질과 도서관 경영능력 모두를 겸비한 사서교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서교사 자격증은 1981년부터 대학에서 발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을 통해서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서교사 양성능력의 축소가 예상되고, 이는 향후 사서교사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계와 현장의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현 상황처럼 사서교사 선발이 지속된다면 사서교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각종 기준들을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수요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사서교사 양성체제와 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양성현황을 살펴본다. 사서교

1) 노영희, 홍강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3), p.251.

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사서교사 양성기관현황과 양성인원현황, 배치현황과 자격증 발급현황을 개관한다.

둘째,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변화에 따라서 향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교직과정승인인원 감축계획의 시행에 따른 사서교사의 양성인원에 있어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향후에 얼마만큼의 사서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인지 그 수요를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사서교사 선발현황, 한국도서관협회기준, 그리고 최근에 공표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바탕으로 사서교사 수요와 배치율 등을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양성체제의 문제점과 사서교사의 수급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학교현황, 사서교사 현황, 학급 수 등)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²⁾ 사서교사의 선발현황 및 경쟁률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자료 및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일부자료는 연구목적의 정확성과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사서교사로 제한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할 가장 적합한 전문인력은 사서교사이며, 실기교사 등은 교육과정체제와 양성 방법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개관

사서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사서교사의 배치에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둘째는 보다 능력 있는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측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우열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설치, 시설, 자료,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육관련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사서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비교과전담교사로서 양호교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서교사배치의 당위성을 지적하였다.³⁾ 이후의 연구에서도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⁴⁾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인용 2006.6.13~19].

3) 변우열,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2권, 제4호(2001.12), pp.331-36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3호)

이병기는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중요성과 21세기 학교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사서교사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사서교사의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서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필요성과, 사서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과교육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⁵⁾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당면과제로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 장학체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세부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교사의 교육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자격검정령시행령에서 사서교사의 표시과목으로서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라는 과목을 지정해야 하며,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사서실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⁶⁾

이상의 사서교사와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공통점은 사서교사의 자격제도 개선과, 사서교사 배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직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원양성체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서교사의 양성문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인자는 직무분석 기법을 통하여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를 규정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16개 교과목을 제안하였다.⁷⁾ 그러나 직무분석 기법을 통하여 사서교사의 직무를 분석한 것은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제안된 16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종성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양성체제를 개관하고,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코어 과목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코어과목의 운영실태를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의 교직과정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관련과목의 편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사서실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⁸⁾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이 사서교사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점으로 다루었거나, 양성체제

4) 변우열,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교도서관 관계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서울 :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2001), pp.7-29.

5) 이병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법적 위상,” 전국 사서교사 세미나 자료집(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pp.3-24.

6) 이병기, “학교도서관의 당면과제와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집(2007), pp.59-79.

7) 안인자 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직무분석(군포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3), pp.4-55.

8) 김종성,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6), pp.376-389.

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사서교사의 양성체제의 현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양성능력과, 사서교사의 선발상황 및 관련기준을 중심으로 사서교사의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양성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II. 사서교사 양성체제 및 현황

1. 사서교사의 양성체제

사서교사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이외에 학부과정에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이용하거나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지만 학부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표 1〉 사서교사 자격종별 및 자격기준

구 분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학교급별 구분없음	1.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경력이 있는 자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양성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사서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근무경력을 가진 후에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사서교사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된 것은 2004년부터이기 때문에 1급 사서교사 자격이 발급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하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서교사의 자격종별 및 자격기준은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사서교사의 교직과정 이수체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영역에서 총 16학점(교직이론 14학점, 교육실습 2학점)을 취득하고, 전공영역에서는 기본이수

과목 5개 과목(14학점)을 포함해서 총 4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교육실습도 실무실습(사서실습)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사서실습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입학자부터는 교직영역에서 총 22학점(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전공영역에서는 기본이수과목 7개 과목(21학점)을 포함해서 총 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⁹⁾

〈표 2〉 사서교사의 교직과정 운영내용

구분	영역	이수학점 및 과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이상(7과목이상)
	교과교육	제외
	교육실습	2학점(4주)(사서교사는 실무실습)
	전공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①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②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사서교사는 직무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가능)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현재 전공과목으로 규정된 8개 과목은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이다.

그리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과교육영역이 제외되었으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과교육영역이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되어 8학점(3과목)이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교직소양영역에서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와 교직실무(2학점) 과목이 신설되었고, 교육실습영역에서 교육봉사활동이 신설되어 1학점 당 30시간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사서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사서교사의 양성현황

학부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와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물론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가 있지만 이는 주전공에서

9) 교육과학기술부, 2008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p.61.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2684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7].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경우로서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위 두 기관에 해당하는 사서교사 교직과정 승인 인원 현황을 조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사서교사 양성 기관은 사범대 1개와 23개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기관별 양성인원의 비율도 2007년 이전까지는 교직과정이 90%를 넘었고, 사범대 양성인원은 10%미만이였다. 2005년도(2008년 현재 4학년 재학생)를 기준으로 양성 가능한 사서교사의 승인 인원은 총 321명이다.

<표 3> 사범대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승인인원 현황

구 분	대학명	입학 정원	승인정원				
			08년도(%)*	07년도(%)**	06년도(%)	05년도(%)	04년도(%)
사범대학	공주대	25	25	25	25	25	25
소 계	사범대 1개	25	25(22%)	25(9%)	25(9%)	25(8%)	25(7%)
교직과정	경기대	40	4	12	12	12	12
	경북대	40	4	12	12	12	20
	계명대	50	5	15	15	15	15
	광주대	35	4	3	3	4	4
	대구가톨릭대	40	4	12	12	12	12
	대구대	40	4	12	12	20	20
	대구대(야간)	40		-	-	9	12
	대진대	40	4	12	12	12	4
	동의대	40	4	12	12	12	15
	명지대	40	4	9	9	9	15
	부산대	39	4	11	11	11	11
	상명대	40	4	12	12	12	20
	서울여대	40	4	12	12	12	20
	성균관대	***	4	12	12	12	20
	숙명여대	30	3	15	15	20	20
	신라대	40	4	12	12	20	20
	이화여대	60	6	18	18	18	18
	전남대	29	3	8	8	8	14
	전북대	35	4	10	10	12	20
	전주대	40	4	12	12	12	20
	중부대	30	3	9	9	9	4
	청주대	40	4	12	12	12	12
	충남대	27	3	8	8	9	15
한남대	40	4	12	12	12	12	
소 계	학과 23개		94(78%)	262(91%)	262(91%)	296(92%)	355(93%)
총 계			115(100%)	287(100%)	287(100%)	321(100%)	380(100%)

* 2008년 승인인원은 2006년 승인인원을 기준으로 교직과정 10% 축소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 2006·20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2007.7.15일 발표)에서는 2006년 자료까지만 반영하고 있으므로 2007년 사서교사 승인 정원은 문헌정보학과의 입학정원에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2006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출하였다.

*** 성균관대는 학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과의 입학정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자료 : “2006·20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2388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

교직과정승인인원은 2007년 262명에서 2008년 94명으로 크게 감소된다. 그 원인은 2007년까지는 학과 입학정원의 30%를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을 할 수 있었으나, 2007년에 발표된 교직과정 승인인원 감축 및 부전공 자격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모든 교직과정이수자의 승인 비율이 입학정원의 10%로 감축되었기 때문이다.¹⁰⁾

다음으로 대학원과정에서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문헌정보교육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표 4>와 같이 현재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 과정이 개설된 기관은 총 16개이고, 2007년에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총 91명으로 조사되었다.¹¹⁾ 물론 사서교육전공의 입학인원은 해당 교육대학원 총 정원과 전공 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매해 일정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모든 신입생이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학하는 것도 아니다. 사서교육전공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기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경우처럼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학원의 경우 지방보다 많은 인원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2007학년도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재학생 현황

구분	경기대	계명대	공주대	대톨릭대	대구대	대진대	명지대	부산대	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청주대	한양대	계
07년 신입생	15	-	16	-	1	4	2	10	3	15	12	2	7	4	-	-	91

자료 : “2006·20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2388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

3. 사서교사 배치 및 자격취득자 현황

사서교사의 배치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서교사 배치의 주된 방법은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가 많다.¹²⁾

10) *Ibid.*, p.83.

11) 대학원별로 모집 방법이 전·후기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간 사서교육전공 재학생 현황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아직 후기학생이 모집되지 않은 2008년보다 2007년 재학생 인원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2007.6.16일 해당학과 및 행정실에 전화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참고로 2008년인 경우 전기까지 총원 88명, 2006년인 경우 전·후기 모두 77명이 입학하였다.

12) 교육과학기술부의 국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사서교사의 총수는 12명에 불과하였다. <<http://assembly.mest.go.kr>> 288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6].

〈표 5〉 2006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배치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배치율
	사서교사	학교	사서교사	학교	사서교사	학교	사서교사	학교	
서울	24	572	1	368	149	297	174	1,237	14.07%
부산	12	293	11	170	11	137	34	600	5.67%
대구	10	205	10	120	3	87	23	412	5.58%
인천	8	216	12	119	7	105	27	440	6.14%
광주	7	136	8	81	4	61	19	278	6.83%
대전	5	136	9	85	4	60	18	281	6.41%
울산	2	114	5	56	3	45	10	215	4.65%
경기	31	1,068	25	516	25	367	81	1,951	4.15%
강원	7	363	4	164	6	115	17	642	2.65%
충북	6	254	7	127	2	82	15	463	3.24%
충남	6	429	5	188	6	113	17	730	2.33%
전북	10	420	5	203	6	131	21	754	2.79%
전남	10	453	4	250	11	152	25	855	2.92%
경북	23	500	15	281	19	197	57	978	5.83%
경남	12	491	4	262	16	180	32	933	3.43%
제주	3	106	2	42	2	30	7	178	3.93%
합계	176	5,756	127	3,032	274	2,159	577	10,947	5.27%
배치율	3.06%		4.2%		12.7%		5.2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인용 2006.6.13].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한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현황은 〈표 5〉와 같다.(2006년 현황까지 반영한 자료임)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는 총 577명으로 배치율은 5.27%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배치율이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 배치율은 고등학교가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전체 배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사서교사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965년부터 수집된 통계자료에서부터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발급된 사서교사 자격증은 총 15,420개로 조사되었다.

자격증 취득경로 역시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수 등 다양하다. 특히 1981년 전까지 사서교사자격증의 발급 경로는 '교수로부터'가 유일하였지만, 1981년부터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사서교사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매해 약 300~400개의 사서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발급된 사서교사 자격증의 총 개수는 6,971개로 조사되었다. 총 15,420개의 자격증이 발급되어 2006년까지 577개의 자격증만이 유효하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전체 발급대비 그 사용비율은 3.74%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발급한 총 자격증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총 6,971개 중 577개는 8.28%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서교사 배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표 6〉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연도	합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	기타자격 발급기관	기타(교수로부터)
2006	504		31	469	4	
2005	430		55	375		
2004	343		2	340	1	
2003	470			365	105	
2002	339			339		
2001	685			394	291	
2000	756		79	370	307	
1999	667			300	367	
1998	459			230	229	
1991-1997	4,041	30	594	2,337	1,080	
1981-1990	4,746	2,935		1,452		359
1964-1980	1,980					1,980
계	15,420	2,965	761	6,971	2,384	2,339

자료 :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인용 2006.6.13].

Ⅲ. 사서교사 수요분석

향후 사서교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서교사 배치에는 각종 법규, 교육정책, 교육예산 그리고 사서교사의 양성능력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배치는 학교도서관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기준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필요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수요예측의 근거로서 사서교사 선발현황,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기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필요한 사서교사 인원을 산출하였다. 사서교사들의 배치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교원 정년연령이 62세이기 때문에 향후 30년간 사서교사의 수요는 대부분 현직교원충원보다는 신규배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퇴직 등의 변수는 수요예측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 사서교사 선발현황 기준

사서교사 수요인원을 예측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최근의 선발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서교사 선발현황 자료는 학교도서관 관련법률, 교육정책, 교육예산, 교원선발계획, 관련단체의 요구 및 역량 등 정책적·환경적 요구조건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8년까지 배치된 사서교사 총원으로 추정되는 786명¹³⁾ 중 임용시험으로 선발되어 발령된 사람은 약 500명이

며, 사립학교의 사서교사 선발이 미비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은 사서교사 배치의 가장 주요 경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각 교육청에서 선발한 사서교사 현황은 <표 7>과 같다. 최근 10년간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2005년에 17명에 불과하였던 선발인원이 2006년을 기점으로 15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5년 말에 학계, 현장 사서교사,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서교사 선발인원확보를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임용시험 선발 현황 및 연간 증가인원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10년 평균	최근3년 평균	증가인원 (연간)
서울	1	3	1	1	2			18	14	10	49	5	14	14
부산	5				3			21	3	5	32	3	10	10
대구					11			5	8	1	25	3	5	5
인천					1	1		16	4	6	28	3	9	9
광주								14	4	4	22	2	7	7
대전								13		5	18	2	6	6
울산					4				9	3	16	2	4	4
경기				6	8	12	10	19	19	18	92	9	19	19
강원					3	3	1	2	8	8	25	3	6	6
충북					2	1	1	9	2	5	20	2	5	5
충남			1		2	2		1	8	8	22	2	6	6
전북							3	10	8	13	34	3	10	10
전남				5				11	3	8	27	3	7	7
경북				22	11	13					46	5	0	5
경남						2	2	11	11	7	33	3	10	10
제주								4	3	4	11	1	4	4
합계	6	3	2	34	47	34	17	154	104	105	500	56	122	127

자료 1 : "04-06년 사서교사 임용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정보요구자료

<http://assembly.mest.go.kr/policy/plc_psn_read.jsp?assembly_gubun=17&assembly_mainno=1760>

[인용 2008.6.16].

자료 2 : 99-03, 07-08년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임용시험 모집공고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하였다.[인용 2008.6.13~16].

임용시험 선발현황이 사서교사 배치의 가장 실제적인 좌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로 사서교사가 선발 및 배치될 경우 향후 그 배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임용시험 선발현황 및 연간 증가인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서교사 선발인원은 2006년부터 큰 폭으

13) 교육통계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 2006년까지 배치된 인원 577명, 2007년 임용시험 합격자 104명, 2008년 임용시험 합격자 105명을 모두 합한 결과는 786명이다.

로 확대되어 이전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6~2008년의 최근 3년 평균 인원을 향후 선발될 연간증가인원으로 설정하였다. 단, 특정 해에 사서교사를 많이 선발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1999~2008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선발인원을 향후 선발될 연간증가인원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연간 127명의 사서교사 선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8〉 임용시험 선발 추세를 반영한 향후 30년간 사서교사 배치율 전망

구분	발령 자계	학교수	연간 증가	5년 후 (2013)	10년 후 (2018)	15년 후 (2023)	20년 후 (2028)	25년 후 (2033)	30년 후 (2038)	전면배치 (2090)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서울	198	1,237	14	268(22%)	338(27%)	408(33%)	478(39%)	548(44%)	618(50%)	1,346(109%)
부산	42	600	10	92(15%)	142(24%)	192(32%)	242(40%)	292(49%)	342(57%)	862(144%)
대구	32	412	5	57(14%)	82(20%)	107(26%)	132(32%)	157(38%)	182(44%)	442(107%)
인천	37	440	9	82(19%)	127(29%)	172(39%)	217(49%)	262(60%)	307(70%)	775(176%)
광주	27	278	7	62(22%)	97(35%)	132(47%)	167(60%)	202(73%)	237(85%)	601(216%)
대전	23	281	6	53(19%)	83(30%)	113(40%)	143(51%)	173(62%)	203(72%)	515(183%)
울산	22	215	4	42(20%)	62(29%)	82(38%)	102(47%)	122(57%)	142(66%)	350(163%)
경기	118	1,951	19	213(11%)	308(16%)	403(21%)	498(26%)	593(30%)	688(35%)	1,676(86%)
강원	33	642	6	63(10%)	93(14%)	123(19%)	153(24%)	183(29%)	213(33%)	525(82%)
충북	22	463	5	47(10%)	72(16%)	97(21%)	122(26%)	147(32%)	172(37%)	432(93%)
충남	33	730	6	63(9%)	93(13%)	123(17%)	153(21%)	183(25%)	213(29%)	525(72%)
전북	42	754	10	92(12%)	142(19%)	192(25%)	242(32%)	292(39%)	342(45%)	862(114%)
전남	36	855	7	71(8%)	106(12%)	141(16%)	176(21%)	211(25%)	246(29%)	610(71%)
경북	57	978	5	82(8%)	107(11%)	132(13%)	157(16%)	182(16%)	207(21%)	467(48%)
경남	50	933	10	100(11%)	150(16%)	200(21%)	250(27%)	300(32%)	350(38%)	870(93%)
제주	14	178	4	34(19%)	54(30%)	74(42%)	94(53%)	114(64%)	134(75%)	342(192%)
합계	786	10,947	127	1,421(13%)	2,056(19%)	2,691(25%)	3,326(30%)	3,961(36%)	4,596(42%)	11,200(102%)

따라서 현재 임용시험 선발추세 대로 매해 127명의 사서교사가 선발된다고 가정할 경우, 5년 단위로 30년간의 사서교사의 배치율 전망은 〈표 8〉과 같다. 즉, 10년 후에는 사서교사 배치율은 19%, 20년 후에는 30%, 30년 후에는 4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전체 합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시간은 앞으로 82년이 지난 2090년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2.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한국도서관 협회에서는 2003년에 도서관기준을 발표하면서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할 사서교

사의 적정 인원을 <표 9>와 같이 설정하였다.¹⁴⁾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인 학교교육시설로 운영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반영하고 있다.

<표 9> 한국도서관 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사서교사 배치기준

구 분	학교 규모	사서교사(인)	실기교사(사서)(인)
초등학교	18학급 미만	전임 사서교사 또는 겸임 사서교사 1	1
	18~35학급	전임 사서교사 1	1
	36학급 이상	전임 사서교사 2	2
중·고등학교	12학급 미만	전임 사서교사 또는 겸임 사서교사 1	1
	12~24학급	전임 사서교사 1	1
	25학급 이상	전임 사서교사 2	2

이 기준에서 전임사서교사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하고, 겸임사서교사는 교과교사로서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사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소지자격을 기준으로 하면 양자 모두는 사서교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의미차이가 없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를 계산해 보자. 먼저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학교수가 10,947개 이므로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도 10,947명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등학교인 경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1명이 더 필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25학급 이상인 경우에 1명이 더 필요하다. 교육통계에서 학교당 학급 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시도교육청별 총 학교수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평균 학급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평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에 적용하여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를 <표 10>과 같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필요한 사서교사 수는 전국적으로 6,328명, 중학교에 필요한 사서교사 수는 4,381명, 고등학교에 필요한 사서교사 수는 3,318명으로 총 14,027명이다. 즉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은 이 정도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학교도서관이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4,027명중에서 기준에 배치된 786명을 제외하면 13,241명이 된다. 즉, 사서교사가 10년을 목표로 전면 배치된다면 매해 1,324명이 필요하게 되고, 20년을 목표로 전면 배치된다면 662명이 필요하고, 최장 30년을 목표로 배치된다 하더라도 441명이 필요하게 된다.

1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74.

〈표 10〉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에 따른 필요인원 산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인원 총계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필요 인원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필요 인원	고등 학교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필요 인원	
서울	572	21,320	37	1,144	368	10,761	29	736	297	10,549	36	594	2,474
부산	293	8578	29	293	170	4,181	25	340	137	4,153	30	274	907
대구	205	6337	31	205	120	3,095	26	240	87	3,032	35	174	619
인천	216	6948	32	216	119	3,092	26	238	105	3,134	30	210	664
광주	136	4033	30	136	81	1,864	23	81	61	1,766	29	122	339
대전	136	3981	29	136	85	1,902	22	85	60	1,801	30	120	341
울산	114	3161	28	114	56	1,492	27	112	45	1,744	39	90	316
경기	1,068	27,550	26	1,068	516	12,914	25	1,032	367	11,512	31	734	2,834
강원	363	4571	13	363	164	1,899	12	164	115	1,852	16	115	642
충북	254	4259	17	254	127	1,974	16	127	82	1,730	21	82	463
충남	429	5692	13	429	188	2,521	13	188	113	2,305	20	113	730
전북	420	5744	14	420	203	2,506	12	203	131	2,483	19	131	754
전남	453	6346	14	453	250	2,619	10	250	152	2,435	16	152	855
경북	500	7454	15	500	281	3,318	12	281	197	3,159	16	197	978
경남	491	9035	18	491	262	4,118	16	262	180	3,751	21	180	933
제주	106	1672	16	106	42	694	17	42	30	650	22	30	178
합계	5,756	126,681		6,328	3,032	58,950		4,381	2,159	56,056		3,318	14,027

3. 학교도서관진흥법 기준

학교도서관이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학교도서관을 지원한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2001년부터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책임, 학교도서관의 봉사 범위, 학교도서관의 장학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마련되었다.¹⁵⁾ 그러나 2007년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을 때에 학계, 현장 사서교사, 관련 기관 모두 일관되게 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2항에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의 범위를 사서교사가 아닌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사서 등’이다. 분명히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는 각기 다른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서는 단순히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동일시하고 있다.¹⁶⁾ 또한 사서교사 등의 업무의

15) 이병기, 전제논문, p.70.

16)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한국도서관협회(2008.6), p.3.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도서관 운영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동안 학계와 관련단체 및 현장의 일관된 요구는,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은 전문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장서기준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배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담직원의 배치 기준

제8조(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서교사 등은 교직원의 수급 및 재정상황 등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표 12> 학교도서관 진흥법 기준 전담배치인력 및 배치율 산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인력 계	배치율 평균
	학교수	학생수	필요 전담 인력	배치율	학교수	학생수	필요 전담 인력	배치율	학교수	학생수	필요 전담 인력	배치율		
서울	572	665,227	443	78%	368	375,937	251	68%	297	355,193	237	80%	931	75%
부산	293	242,193	161	55%	170	144,991	97	57%	137	137,276	92	67%	350	58%
대구	205	199,471	133	65%	120	113,962	76	63%	87	105,396	70	81%	279	68%
인천	216	214,671	143	66%	119	121,864	81	68%	105	106,501	71	68%	295	67%
광주	136	132,619	88	65%	81	71,033	47	58%	61	61,746	41	67%	177	64%
대전	136	125,583	84	62%	85	67,626	45	53%	60	60,828	41	68%	169	60%
울산	114	99,281	66	58%	56	55,201	37	66%	45	48,604	32	72%	135	63%
경기	1,068	951,908	635	59%	516	489,548	326	63%	367	411,732	274	75%	1,235	63%
강원	363	114,973	77	21%	164	59,834	40	24%	115	54,504	36	32%	153	24%
충북	254	120,998	81	32%	127	64,291	43	34%	82	56,073	37	46%	161	35%
충남	429	153,984	103	24%	188	78,026	52	28%	113	69,373	46	41%	201	28%
전북	420	149,721	100	24%	203	78,859	53	26%	131	70,584	47	36%	199	26%
전남	453	148,376	99	22%	250	76,055	51	20%	152	67,989	45	30%	195	23%
경북	500	196,170	131	26%	281	101,636	68	24%	197	95,208	63	32%	262	27%
경남	491	264,776	177	36%	262	138,629	92	35%	180	119,431	80	44%	349	37%
제주	106	50,047	33	31%	42	25,667	17	41%	30	20,936	14	47%	64	36%
합계	5,756	3,829,998	2,553	44%	3,032	2,063,159	1,375	45%	2,159	1,841,374	1,228	57%	5,156	47%

이 기준에 따라서 학생 1,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별 학생수와 학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5,156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인원이 배치되었을 경우 전체 학교 대비 배치율은 전국 평균 47%밖에 되지 않으며, 더구나 강원도와 같이 학생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한 전담인력의 배치 기준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담인력의 구분을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만큼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필요인력 5,156명 중 기존에 배치된 전담인력 3,502명¹⁷⁾을 제외하면 1,654의 전담인력만 추가로 배치되면 이법에서 규정한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또 단순히 1,654명을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면 총 551명의 사서교사만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모호하게 교직원의 수급 및 재정상황 등의 교육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언제 배치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IV. 사서교사 양성체제 및 수급 문제점 분석

1. 양성체제의 문제점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사서교사의 교직과정 이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로서 교육적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영역 교과목설정 문제이다. 분명히 사서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겸비해야 하고 교직과정 체계는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교직과정체계는 업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직과정 내용 중에서 교과교육영역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현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변화에 따라서 사서교사의 교육적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헌정보교육론, 정보활용교육 등의 교육영역교과목이 지정되어야 한다.¹⁹⁾

둘째,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문제이다. 기존에는 학교도서관의 수도 부족하고 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도 미비하였다. 그래서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은 타 교사와는 달리 사서실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습기관도 학교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과정에서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서실

17) 이선, “개정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 정책특강”, 2008학년도 사서연수교재(충남 : 공주대학교 교육연수원, 2008), p.21.에 따르면 2007년까지 배치된 계약직 사서는 2,716명이며, 2008년까지 배치된 사서교사는 786명이므로 그 합계는 3,502명이다.

18)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234.

19) 이병기, 전개논문, p.69.

습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⁰⁾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운영업무, 교육봉사업무,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과 봉사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환경조건이 개선되어 사서교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배치되었고, 학교도서관 시설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은 반드시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서실습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용상의 문제이다. 사서교사 임용시험의 전공과목 중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은 학교도서관운영론, 독서교육론, 정보매체론 등이다.²¹⁾ 그러나 이 과목들을 모두를 개설한 학과는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학교도서관운영론조차도 개설하지 않는 학과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을 초래하고, 재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성기관 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양성기관이 지나치게 교직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교원을 양성하는 타 교과는 다수의 사범대학과 다수의 비사범계 교직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공급의 측면에서 교육기관별로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사서교사의 경우에 사범대는 공주대학교 1개 밖에 없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양성은 23개의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과정 중심으로 사서교사가 양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인 경우에는 사서교사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 일부인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로 진로를 결정한 재학생은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못하여 불충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교원양성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너무 많아서 이들이 제한된 선발시험에서 과잉경쟁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직과정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경우 분명히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 교과와 동일하게 축소됨으로써 자칫 수요에 필요한 인원조차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표 13〉은 학부과정의 교직과정승인인원 현황과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의 재학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성될 사서교사 예정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부터 양성인원은 꾸준

20) 김종성, 전계논문, p.378.

2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사서」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 연구,』 사서교사 임용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자료집(서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p.52.

히 줄어들다가 2012년에는 206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 중에서 학부과정은 115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급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2008년에는 교육기관별 양성인원 비율이 사범대 5%, 교직과정 76%, 교육대학원 19%로 되어 있지만, 2012년에는 사범대 12%, 교직과정 44%, 교육대학원 44%로 바뀌게 된다. 단순히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사서교사 양성기관 중에서 사범대의 비중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성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숫자로 놓고 보면 결국 사범대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은 매해 25명밖에 되지 않는다.

〈표 13〉 2008~2012년 사서교사 양성인원 예측전망

구 분		2008년 (04년 입학생)	2009년 (05년 입학생)	2010년 (06년 입학생)	2011년 (07년 입학생)	2012년 (08년 입학생)
4년제과정	사범대	25(5.3%)	25(6.1%)	25(6.6%)	25(6.6%)	25(12.1%)
	교직과정	355(75.4%)	296(71.8%)	262(69.9%)	262(69.9%)	90(43.7%)
	소계	380(81%)	321(78%)	287(76%)	287(76%)	115(56%)
대학원과정*	교육대학원	91(19.3%)	91(22.1%)	91(24.1%)	91(24.1%)	91(44.2%)
	합계	471(100%)	412(100%)	378(100%)	378(100%)	206(100%)

* 사서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인 경우 2007학년도 재학생인원을 매해 동일하게 91명으로 적용하였다.

종래에 40명이 정원인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12명(30%)의 학생들이 교직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원이 축소되어 4명(10%)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사서교사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학부보다 석사과정에서 사서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교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격취득의 측면에서 보면 학부과정에서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타 교과목의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과정을 통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서교사는 학부과정 승인인원이 적기 때문에 석사과정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는 교원양성에 있어서 불평등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사서교사 수요 및 배치 기준의 문제점

그동안 학계와 현장의 일관적인 요구는 사서교사의 전면배치였다. 이를 위해서 학계, 현장, 재학생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최근 3년간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평균 122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으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상황대로 사서

교사가 배치된다면 전면배치는 지금으로부터 82년이 지난 2090년에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전면배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으로 향후 필요한 사서교사의 인원을 계산한 결과 총 14,027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목표를 10년으로 설정한다면 매해 1,324명, 20년으로 설정한다면 662명, 최장 30년으로 배치목표를 설정한다 해도 441명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기관의 기준설정이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과연 이 기준이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현실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숫자를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서교사 양성능력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표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전담인력의 배치측면에서 살펴보자. 물론 전담인력의 형태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학생 1,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5,156명이 필요하고, 기준에 배치된 전담인력을 제외하면 1,654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을 단순히 3유형으로 나누면 필요한 사서교사는 551명에 불과하다. 비록 법령자체에서 사서교사 배치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배치완료 시점을 10년을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55명의 사서교사만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령의 취지가 학교도서관을 진흥시키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학교도서관진흥의 기본이 되는 사서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3. 사서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점

〈표 13〉의 사서교사의 양성인원 예측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사서교사 양성인원은 2008년에 471명에서 2012년에 206명으로 약56%가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직과정 축소가 실제로 반영되는 2012년과 그 전년도인 2011년의 사서교사 양성인원과 수요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수요전망은 앞에서 설정한 임용시험을 통해 향후 선발될 연간증가인원 127명과,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에 따라 전면배치 시점을 각각 10년, 20년, 30년 단위로 하여 그 수요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배치기준은 전담인력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비교 결과 임용시험을 통해 향후 선발될 연간증가인원 127명을 기준으로 2011년에는 수요대비 양성인원은 298%이지만, 2012년에는 162%로 줄어들고,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수요가 양성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30년을 전면배치 시점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2012년에는 연간 47%밖에 양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의 양성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서교사의 양성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서교사 배치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정책기관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14〉 2011년과 2012년의 양성인원과 수요전망 대비

비 고	기 준	2011년		2012년	
		인원	수요대비 양성률**	인원	수요대비 양성률**
양성인원	양성 인원 현황*	378		206	
수요전망	임용시험 연간 수요	127	298%	127	162%
	협회기준(10년)	1,324	29%	1,324	16%
	협회기준(20년)	662	57%	662	31%
	협회기준(30년)	441	86%	441	47%

* 양성현황은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모두 포함하였다. 〈표 13〉 참조.

** 수요대비 양성률 = (양성인원현황/각 기준별 수요인원) × 100.

V. 사서교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

1. 적정 양성인원

너무나 많은 사서교사가 양성되어 실제 자격을 취득해도 이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필요인원보다 적게 양성되어 사서교사배치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사서교사 양성인원을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사서교사를 양성해야 하는지 분석할 필요는 있다.

사서교사 진출의 주 경로는 임용시험이다. 〈표 15〉는 최근 5년간 임용시험 응시 현황과 경쟁률을 종합한 자료이다.

〈표 15〉 최근 5년간 사서교사 임용시험 응시현황

연 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04	34	336	9.9 : 1
2005	17	356	20.9 : 1
2006	154	655	4.3 : 1
2007	104	612	5.9 : 1
2008	105	697	6.6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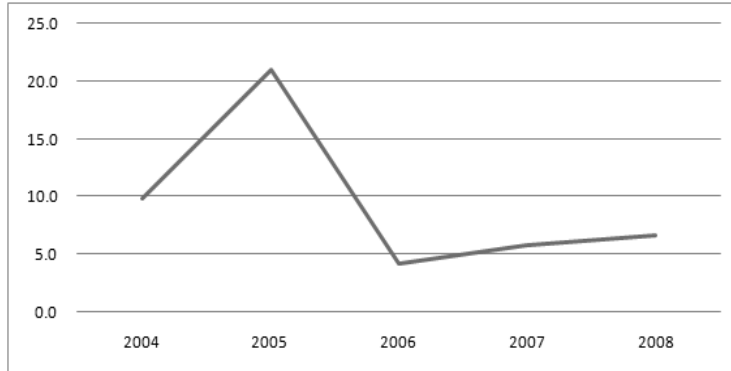
자료 1 : “04-06년 사서교사 임용시험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제출자료

〈http://assembly.mest.go.kr/policy/plc_psn_read.jsp?assembly_gubun=17&assembly_mainno=1760〉
[인용 2008.6.18].

자료 2 :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현황 및 장애인 교원 선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인용 2008.6.18].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 2351번 게시자료

자료 3 : 2008년도 현황자료는 각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공고문을 통해서 확보하였다. [인용 2008.6.18].



〈그림 1〉 최근 5년간 임용시험 경쟁률 추이

먼저 사서교사 임용시험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응시율은 2004~2005년에는 330~36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5에는 선발인원이 17명밖에 되지 않아 경쟁률이 21:1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응시인원은 612~69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발인원이 평균 12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경쟁률은 약 7:1 미만으로서 오히려 낮아졌다.

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사서교사자격취득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즉,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와 사서교사자격증 취득자를 모두 합해서 응시자가 최근 3년 평균 654명이란 것은 사서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2008년 한해의 자격취득자로 예상되는 471명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응시자는 2년 동안의 양성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을 졸업 후 10년으로 가정한다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5,115명일 것으로 추정된다.²²⁾ 이 중에서 2008년 응시자는 697명에 불과하다. 즉, 지난 10년간 사서교사를 양성하였지만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은 약 1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취득자의 임용시험 응시비율이 매우 낮다면 일정수준의 경쟁률을 확보하여 우수한 사서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양성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표 16〉은 2007년 사서교사를 포함한 교과교사, 비교과교사(사서, 보건, 상담) 전체의 임용시험 현황자료이다. 2007년에 교과교사의 평균경쟁률은 약 16:1이고, 비교과교사 전체의 평균경쟁률은 약 10:1이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경쟁률은 6:1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비교과교사의 평균경쟁률이 낮아진 원인을 살펴보면 보건 교사의 평균경쟁률이 22:1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와 전문상담

22) 〈표 6〉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현황자료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4,194명, 2007년 양성 추정인원 약 450명, 2008년 양성추정인원 471을 모두 합산하였다.

교사의 경쟁률이 6:1미만이기 때문이었다.

〈표 16〉 2007 임용시험 경쟁률 현황

구분	과목	모집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교과교사 소계	총 40개 과목	3,787	59,012	15.6
비교과	사서	104	612	5.9
	보건	120	2,669	22.2
	전문상담	260	1,464	5.6
비교과교사 소계	비교과 교사	484	4,745	9.8
합계		4,271	63,757	14.9

자료 :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현황 및 장애인 교원 선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 2351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

물론 교원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하여 이것이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교직승인인원 감축정책을 통해 과잉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감안하면 임용시험의 평균경쟁률 16:1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교직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고, 인재선발의 관점에서 일정수준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각 교과의 경쟁률이 선발된 인적 자원의 능력과 정비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서교사의 경쟁률은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임용시험 전체 경쟁률과, 비교과교사의 전체 경쟁률 등을 감안할 때 사서교사의 경쟁률은 10:1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교사의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자. 〈표 17〉은 4년제 대학의 비교과교사 교직승인인원 현황자료이다. 비교과교사 중에서 사서교사의 양성기관은 24개로 보건교사 47개, 영양교사 57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고, 전문상담교사와 비교해도 10개가 적다. 마찬가지로 교직승인인원 역시 사서교사는 보건교사 대비 40%밖에 되지 않으며 상담교사 대비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표 17〉 비교과 교사 2006년 교직승인인원(학부과정)

비교과	양성기관수	승인인원
사서교사	24	287
보건교사	47	720
전문상담교사	34	432
영양교사	57	700

자료 : “2006·20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2388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

이상을 종합하면 사서교사 양성인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양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양성기관도 늘어나야 한다. 결국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서교사의 적정 양성인원은 약 600명이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가장 현실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임용시험의 추세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해 약 127명이 필요하고, 선발시험에서 일정수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선발인원대비 양성인원은 최소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양성 추정인원이 471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응시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7:1 수준이었다. 따라서 129명을 추가적으로 양성하더라도 당분간 평균경쟁률은 10:1을 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다른 비교과교사만큼의 양성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 상담, 영양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된다. 따라서 사서교사도 그만큼의 양성능력을 갖추어야 임용선발인원, 경쟁률 비교, 교직원 정원 재조정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 상담, 영양 교사의 평균 양성인원은 617명이다.

세 번째 근거는 전문단체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사서교사배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양성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교사 배치기준이 향후 10년 동안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최대 20년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해 662명의 사서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양성인원 확대방안

사서교사 양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교직과정승인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정책에 따라서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추가로 신설되더라도 교직과정의 추가 승인은 어렵다.²³⁾ 따라서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교직과정승인인원을 2007년 이전처럼 다시 30%로 확대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제15조 2항이다.

따라서 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교직과정 승인비율을 다시 30%로 확대하면, 2012년 이후 예상되는 사서교사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직승인인원 확대는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직승인인원 축소에 따라 3~4명만을 대상으로 사서교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p.83-84.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84년부터 교직과정의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며, 2007학년부터 교원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직과정의 신규설치를 가급적 불허하고 있다(관련근거 : 교원양성연수과-8059, 2006.11.23).

〈표 18〉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15조

<p>제1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개정 1999.1.29>)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0.5, 1992.2.18></p> <p>② 삭제<1999.1.29></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p>
--

그러나 사서교사 수요가 아무리 크게 늘어나더라도 교직과정승인인원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사서교사의 양성인원은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총 47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직과정의 추가 승인이 어렵고, 사서교사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적의 대안은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의 신설이다. 사범대학의 문헌정보 교육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의 교육적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양성기관이 사범대학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서교사의 양성기관은 현재 교직과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 및 수급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교직과정 축소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과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사서교사 양성체제의 특수성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며, 안정적인 사서교사 공급차원에서도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안한 사서교사의 적정 양성인원은 약 600명이었다. 교직과정을 다시 30%로 확대하여 양성할 수 있는 총인원을 471명이라고 가정하면 약 130명 정도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30명 정원 규모의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4개가 신설될 여지는 충분하다.

VI. 결 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운영의 측면 못지않게 교육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도서관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최근의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이르기까지도 학교도서관의 인력정책은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인력정책은 이제 '전담인력'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서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 활용수업을 포함한 수업지도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교육관련 과목을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서실습도 이제는 여건이 갖추어진 만큼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서교사 양성기관은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양성비율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직과정승인 인원의 10% 감축정책은 사서교사의 양성능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2008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수 있는 사서교사는 206명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서교사 수급불균형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최근 3년간 임용시험을 통해서 평균 122명 정도 현장에 배치되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로 배치가 진행된다면 2090년에 이르러서야 사서교사가 전면 배치될 것이다. 이것이 사서교사 수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다. 다음으로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기준을 적용하면 향후 필요한 인원은 14,027명이다. 이것이 10년을 목표로 달성되면 연간 1,323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향후 사서교사 양성능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사서교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향후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사서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6:1수준으로 임용시험 전체 경쟁률 16: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또한 비교과교사 경쟁률 평균 10:1보다 낮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사서교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실제 임용시험 응시자는 14%정도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서교사의 양성기관은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의 양성기관보다 적고, 양성인원도 보건교사의 40%, 상담교사의 60% 수준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적자원 선발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00명 정도의 사서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사서교사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과정승인인원을 기존처럼 30%로 확대하여야 한다.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속히 승인인원 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승인인원을 재조정하더라도 471명 이상 양성이 어렵고,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양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서교사의 양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사범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사서교사의

양성체제의 특수성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사서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8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진흥이 아니라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아직도 95%의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편.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안인자 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직무분석. 군포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3.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 변우열.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331-360.
- 변우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후의 정책적 과제.”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학교도서관 정책포럼, 2007, pp.43-72.
- 이병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법적 위상.” 전국 사서교사 세미나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pp.3-27.
- 이병기. “학교도서관의 당면과제와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집(2007), pp.60-72.
- 김종성.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371-380.
- 김종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67-9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인용 2006.6.13~19].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06·20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2388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제출자료. “04-06년 사서교사 임용현황”, <http://assembly.mest.go.kr/policy/plc_psn_read.jsp?assembly_gubun=17&assembly_mainno=1760> [인용 2008.6.18].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현황 및 장애인 교원 선발”,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 2351번 게시자료 [인용 2008.6.18].